

조선족 여성작가 허련순의 소설과 당대 남성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 연구

— 20세기 말에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 —

오 상 순*

1. 서론
2. '뿌리 찾기' — 선조와의 연계성에 대한 추구
3. 민족정신과 '뿌리 찾기 의식'
4. 민족적 성격과 '뿌리 찾기 의식'
5. 민족적 위기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
6. 민족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뿌리 찾기 의식'
7. 결론

*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어언문학회 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여성작가 허련순의 작품을 비롯한 20세기말 조선족 문학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뿌리 찾기 의식'과 민족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20세기 말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정치적 제 환경의 제약으로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 문학은 민족의식을 의식적으로 회피하였고 역사소설도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공헌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위치를 긍정하고 공고히 하는데 집중되었다. 사상해방과 함께 창작이 자유로워지자 조선족 작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켜 보고 민족의 뿌리를 찾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면서 강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본고는 조선족 여성 작가인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을 비롯하여 현실 제재 소설인 리원길의 장편소설 『설야』, 권운의 중편소설 『황소』, 최국철의 중편소설 『그와 그의 후예들』, 임원춘의 단편소설 『몽당치마』와 역사 제재 소설들인 리근전의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 김학철의 장편소설 『격정시대』, 최홍일의 장편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뿌리 찾기 의식'—선조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추적하고 조선족 문화의 성격과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민족정신, 민족성격, 인정세태와 풍속 습관 및 언어에서 민족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이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학과 민족문화와의 관계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했다.

핵심어 : 조선족 소설, '뿌리 찾기 의식', 민족정신, 민족적 성격, 허련순

1. 서론

1976년 10월 '4인방'이 타도되고 중국은 개혁 개방¹⁾의 새로운 역사 시기에 들어섰다. 그때로부터 20여 년간, 중국은 개혁 개방의 세찬 물결 속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동방문화와 서방문화, 농경문화와 도시문화의 만남과 갈등 속에서 거대한 변혁을 치르면서 발전해왔다.

사회적 변혁과 함께 중국 조선족 문학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말 조선족 문학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것은 주제의식의 개방성과 다양성 및 의식성향의 변화이다. 조선족 문학에 나타난 의식성향으로는 '뿌리 찾기 의식', 비극 의식, 비판 의식, 생명 의식, 평민 의식, 반전통문화 의식, 농민 의식, 유동 의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뿌리 찾기 의식'은 20세기말 조선족 소설문학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의식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 찾기 문학'(尋根文學)은 중국문단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하나의 문학사조이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국은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봉쇄되었던 문이 활짝 열렸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전례 없던 대규모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외국문화는 그 골수로부터 중국문학을 개변시키지는 못했지만 거침없이 침투, 충격을 주면서 중국문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외국문화의 침투는 중국문학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왔던 중국사회가 처음으로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서구문화 열에 빠져, 서구의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민족의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나자, 문단 내부에서 반발 심리가 팽창하게 되었고 그것은 외국문화의 침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적으

1) 개혁 개방 : 중국 정부가 1978년에 실시한, 대내로는 개혁을 실시하고 대외로는 개방을 실현한다는 정책.

로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그것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뿌리 찾기’가 하나의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뿌리 찾기’란 민족문화전통에서 현실극복과 민족의식 고양의 근거와 자양분을 찾는 것으로, 작가들은 문화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딪친 허다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사비판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를 다시 해석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민족의 자강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인정했고 서방문화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자기문화로 돌아와 신명의 혼란시대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조선족 문단의 경우, ‘극좌’ 노선이 판치던 지난 시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은 장기간 변형, 왜곡되었고 문학창작에서는 민족의식을 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이나 민족특색을 조금만 말하면 계급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고 지방민족주의를 선양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문학에서 민족역사를 쓰면 ‘민족혈통론’을 고취하는 것으로 되어 비판받았다.

개혁 개방이 실시되면서 당의 민족정책이 복원되고 민족문제도 금지구역에서 풀려나게 되자, 조선족 작가들은 오래 전부터 시도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선조와의 연계성 추구—‘뿌리 찾기’ 작업에 나섰다.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1984), 윤일산의 『어둠을 뚫고』(1981), 김운룡의 『밀림의 딸』(1983) 등이 그것이다. 이때의 ‘뿌리 찾기’는 작가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본격적인 ‘뿌리 찾기’ 작업은 아니었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었던 민족적 수난에 반발하여 “우리 조선족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주장하는 데 더 역점을 둔 것 같다. 중국문단의 ‘뿌리 찾기’ 사조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조선족의 생존과 생활에 대한 문화적인 시도로서 본격적으로 ‘뿌리 찾기’에 열중한 작품들로는 김학철의 『겨정시대』(1986), 리원길의 『설야』(1989), 「춘정」(1991), 리혜선의 「어랑 할미 백세 일화」,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1994),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발표된 조선족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우

선 현실 제재, 역사 제재를 통해 ‘뿌리 찾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품을 개괄한 뒤, 개별 작품에서 조선족의 정신, 성격, 풍습과 언어 등을 통해 민족 문화전통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여 조선족 소설의 ‘뿌리 찾기 의식’을 구명하고자 한다.

2. ‘뿌리 찾기’ — 선조와의 연계성에 대한 추구

‘뿌리 찾기’는 문화의식의 각성이며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판룡 교수는 1980년대 조선족 문단에 나타난 역사제재 소설 창작을 두고 “이 몇 년 사이,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도 민족문학에서 역사제재, 역사배경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한 민족이나 약소한 민족이나 모두 뿌리 찾기 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이것이 마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근 백 년 동안 우리는 계급투쟁만 하다 보니 자기의 민족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역사소설 혹은 역사제재소설, 역사배경소설의 흥기는 바로 중국 조선족이 자기를 인식하고 싶어 하는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표지이며 우리 민족의 성숙의 표지로 된다.”²⁾고 하였다. 또 조성일은 그것을 ‘문화대혁명’을 겪은 후 민족의 자아각성의 표현이며 민족의식의 고양의 표현³⁾이라고 하였다.

‘뿌리 찾기’문학은 첫째 민족문화전통에서 현실극복의 의지와 신념을 찾자는 것, 둘째 민족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는 것, 셋째 현 시대의 문화발전에 저촉되는 문화전통은 계속 비판하

2)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1995년, 제47기, p.8.

3) 같은 곳.

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에서 민족공동체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월경한 민족이다. 월경(越境) 민족으로서 작가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문화학적 문제였다. 조선족 가운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활난으로 고국을 떠나 중국의 동북지역에 이주하여 땅을 개척하고 가업을 이루며 점차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0세기 초엽에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20~30년대에 나라를 찾기 위하여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인과 함께 혁명 활동을 하다가 이런 저런 원인으로 하여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정착한 혁명투사 또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있다. 이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민족공동체를 이룬 그 연유와 경로가 다르나, 모두 한반도로부터 이주하여온 사람들이며 혈연적으로도, 문화전통으로도 한반도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계성에 대한 표현은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진실하게 반영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이민 시대 조상들의 삶과 중화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조선족의 생활과 투쟁 등 민족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역사적 시각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고 문화적인 시점에서 전통의 본질을 발굴하고 민족문화의 이미지를 추적하였다.

현재 조선족의 생활을 소재로 ‘뿌리 찾기’를 가장 본격적으로 시도한 작품은 조선족 여성 작가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이다. 이 작품은 정든 고향을 떠나 월경 민족으로 정착한 중국의 지성인 홍지하 일가의 뼈아픈 사연과, 뿌리를 찾아 고국 땅을 밟은 홍지하의 할아버지 찾기가 주선(主線)이 되어, 그 와중에 겪었던 설움과 냉대와 억울함, 그와 세 여자 사이에 서리서리 엮힌 사랑과 원한의 사연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꿈을 안고 고국을 찾아간 순박한 부부 최인규와 지혜경의 눈물겨운 이야기—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한국의 어느 사장의 씨받이가 되어, 갖은 육체적 시달림과 정신적 굴욕 속에 몸부림치던 지혜경이 정조도, 인격도, 희망도

깡그리 잃고, 눈송이와 같이 고국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비참한 말로와 어쩔 수 없이 그 한 많은 뒷길을 따르는 최인규의 비극적인 운명—를 그리고 있다. 소설은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받는 갖가지 냉대와 굴욕과 멸시를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금전에 의해 엮어지는 한국사회의 삭막한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월경 민족으로 정착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요, 뿌리를 찾는 해외동포의 작업은 숙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작업은 열기설기 얽힌,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 차단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동족으로서의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볼 수 있고 많은 시사를 받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 홍지하의 아버지 홍범산(홍순보)은 일제 때 강제 징집되어 끌려 중국 만주에 건너오게 되었고, 일제가 투항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중국에 주저앉게 되었다.

고향이란 무엇인지, 아버지는 생전에 눈만 뜨면 고향을 외웠고 고향의 밤나무를 외울 때면 이슬 맺힌 눈에 파아란 그리움이 숲처럼 설레었다. 문화대혁명 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고향인 남한을 외웠던 죄와 일본군에 있었다고 하는 역사문제로 ‘××특무’로 몰리어 밤낮으로 두들겨 맞아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고 임종시에는 “고향땅이 그림다…… 그곳에 가서 조용히 누워봤으면…….” 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 생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들 홍지하는 아버지의 ‘골회함(유골함—인용자)’을 안고 뿌리를 찾아 고향에 왔는데, 유산 상속권 때문에 아버지의 전처와 이복형 홍성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복동생인 홍지하를 냉대한다. 홍지하는 서울 바닥에서 외롭게 표류하면서 갖은 모욕과 냉대와 고통을 삼키며 할아버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나, 할아버지는 손자 홍지하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하게 되고, 아버지의 유골함은 혈육들의 버림을 받아 문힐 곳도 없게

된다. 흥지하는 결국 아버지의 뺨가루를 고향 산에 뿌린다.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땅에 묻히지 못하고 “애처롭게 휘날리는 산골(散骨)의 바람꽃이 된 아버지의 외로운 혼백”이지만, “아버지가 태어난 땅에다가 고루고루 뿌려주어”, “거처 없이 삭막한 사막 그 어디든 무턱대고 방황했던 아버지의 영혼”이 안식 속으로 가라앉는 듯 주위는 조용했다고 작가는 묘사한다.

이것이 정녕 중국의 조선족—자기의 뿌리를 찾아 헤메지만 고향땅에도 뿌리 내릴 곳 없는 ‘바람꽃’—의 신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가가 소설의 서문에서 적은 것 또한 작품의 주제에 대한 암시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귀추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꽃, 바람이 불어왔던 곳과 바람이 자는 그곳 두 세계 중의 어느 곳에 머무르며 또 어느 한곳에도 머무르지 않은 채 두 곳을 끊임없이 우왕좌왕하였다. 언제나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한곳에 대한 끊임없는 추억과 망각, 그리움과 원망의 갈등을 수없이 겪으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수없이 날아갔었다. 언제나 두 세계에서 함께 공존했던 셈이고 두 세계에서 함께 탈출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나는 누구일까. 바람, 바로 바람꽃이 뿌리고 간 하나의 작은 바람, 뿌연 그리움을 안고 안으로 안으로만 한이 되어 은밀히 잠적해야 했던 외로운 바람, 재미적었던 세상에 대한 설움과 운분에 멍이 들었던 가슴을 부들여 웃기를 여미며 돌아섰던 쌀쌀맞은 바람, 자신의 소망마저 강 속에 얼귀 붙인 채 한없는 겨울 군잠⁴⁾에 빠져버려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두터운 흙먼지만 쌓아올리던 게으름뱅이 바람이었다.

소설은 주인공 흥지하가 한국에서의 ‘뿌리 찾기’—할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혈통, 민족과 조국에 대한 이미지를 사색하면서 중국 조선족들이 현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느끼는 갈등과 고뇌를 깊이 파헤쳤다.

중국의 조선족은 장기간 한국과 담을 쌓고 살아왔기에 한국이나 자기의

4) 깊은 잠의 방언.

전통문화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에 기인한 것인데, 8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88 서울 올림픽과 1992년 한중 수교 후, 중국 조선족문화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5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한국을 접했을 때, 중국의 조선족은 분명히 저것이 우리이고 우리 문화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대 한국 붐이 일게 된 것도 당연한 문화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문화적 뿌리를 찾는 열기가 일기 시작한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는 가운데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과 자신들 사이에 관념, 사상,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페스마카호’⁵⁾ 사건은 이러한 문화적 알력과 갈등을 보여준 전형적인 실례라 하겠는데, 이러한 마찰과 갈등 속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답습하는 것 역시 중국 조선족문화의 나아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비록 한 민족이고 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반세기에 걸쳐 이룩된 관념과 의식, 그리고 문화적인 골은 그렇게 한두 번의 만남이나 접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미래 문화선택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국 조선족이 문화대혁명 후에 부딪친 가장 큰 문화적 현안이었다.⁶⁾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이 고국 땅에서의 뿌리 찾기 작업을 소설화 하였다면, 리근전의 장편소설 『고난의 연대』, 최홍일의 장편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은 조선족의 이민사라는 역사 제재를 통하여 뿌리 찾기 작업을 실천하였다.

5) 1996년, 조선족 전제천(주범) 등이 한국 어선에서 일하다가 한국인들과의 갈등으로 선장 등 한국인 11명을 살해한 사건.

6) 윤윤진, 『뿌리 찾기』와 『눈물 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년 제5기.

이민사는 중국 조선족의 중요한 역사로서 중국 조선 민족의 생존방식과 특성 형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해보고 전통과 현대와의 관계, 조선족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⁷⁾

『고난의 년대』(상, 하, 1984)는 중국 조선족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수난의 이민사와 투쟁의 역사를 역사주의적 시각에서 펼쳐 보인 작품이다. 소설은 중국 '간도'를 무대로, 조선인 이주민 박천수, 오영길, 최영세 부자간, 즉 세 가정 두 세대의 복잡한 모순과 충돌을 갈등선으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고 있는데 소설의 중심에는 박천수와 그의 아들 박윤민이 서 있다.

박천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가족을 이끌고 '간도'의 천수등에 온다. 소박하고 정직한 박천수는 자기네가 가난한 것은 땅이 없기 때문이며, '간도'에는 주인 없는 땅이 얼마든지 있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거친 만주 땅에 들어온다. 워낙 근면하고 부지런한 박천수는 천년 묵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부대⁸⁾를 일구고, 천신만고 끝에 샘물을 찾아 수도병을 근절하며, 피나는 노력으로 토양에 맞는 벼 종자를 개발하여 벼농사에 성공하며, 조선의 뽕나무를 '간도'에 재배하여 하나 하나 기본적인 생활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그러나 험악한 현실은 선량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그를 더욱 흑심한 가난의 심연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던 중, 박천수는 오영길의 밀고로 관청에 붙잡혀 들어가 혹형을 당하며, 이태만에 반죽음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땅도 집도 모조리 지주에게 빼앗기고 만아들은 지주의 종신 머슴으로 들어가 있었다.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청원운동을 크게 벌였으나, 청원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박천수는 워낙 악형을 받으면서 얻은 중병에다 청원운동의 실패에서 오는 울화병으로 세

7) 장춘식, 「민족이민사 재현의 시각 문제」, 『조선학(1996)』(민족출판사, 1997), p.189.

8) 화전(火田)의 북한말.

상을 뜨고 만다. 박천수가 이민 1세의 형상이라면, 박운민은 이민 2세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 박천수의 이상을 실천, 실현하는 인물로서, 이때에야 조선족 대중의 생존과 지주를 위한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는 이민사 형식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의 개척사와 불멸의 투쟁사를 사실주의 화폭으로 그림으로써 재중 조선인이 중국 조선족으로 형성되는 그 전반 과정을 역사적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조선족 이민사에 대한 선구적인 묘사와 조선족 '역사의 발자취'에 대한 진실한 묘사에서 오는 역사감과 시대감으로 문학적 가치가 있다.

최홍일의 장편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1993)은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용두레촌과 장재촌을 기본 무대로 하여, 박철성과 아들 박팔용, 청국인 지주 동영감네 일가족과 사위 이용달, 떠돌이 막벌이 군이었던 청국인 오강, 선비 출신의 최훈장 등 다양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간도' 개척 초기, 이주민들의 생활양상 및 날로 복잡해지는 대립과 모순 속에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운명과 그들의 회로에락을 사실주의적으로 펼쳐보였다.

1884년 조선에서 살던 박철성, 득보, 갑술 영감(득보의 부친)은 날로 심해지는 생활난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거친 '간도' 땅에 와서 용두레촌을 개척한다. 주인공 박철성은 종자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불 큰 아들 팔용이를 장재촌의 지주 동영감한테 머슴으로 보낸다. 이때부터 용두레촌과 장재촌을 생활무대로 이야기가 엮어진다. 용두레촌이 점차 번성하면서 박철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개척파(자작농)와 지주로 부상한 청국인 오강 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모순과 대립이 날카로워진다. 이때 장재촌의 용달(동영감의 사위)이도 차츰 용두레촌에 경제력을 침투시킨다. 일제가 동북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넘보고 '간도' 땅에 세력을 확장시키 나가자 이 세 파는 조그만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민족 모순 등으로 일제

의 간도 침입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력인 친일파가 생겨난다.

소설에서 박철성은 용두레촌 개척자의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숙명적으로 농부의 일생을 살아온 그는 땅에 대해 깊은 애착심을 갖고 있다. 척박한 돌골에서 허기진 땅을 두지고 거기에서 나는 보잘 것 없는 식량으로 목숨을 연명하던 그는 배불리 먹고 살려는 소박한 염원 하나로 고향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와 용두레촌을 개척한다.

[...] 아득하게 펼쳐져 나간 평야를 서쪽에서 달려 나온 강이 가로지르더니 육도화와 합류되어 동쪽으로 줄기차게 흘러갔다. 합수목에 발길을 멈추고 평야를 둘러보니 강 양안은 버들 숲이 우거져 눈 모자라게 펼쳐져 갔고 사체에 잡초 우거지고 갈대숲이 설레어 벌거벗은 땅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다. 가는 곳마다 부식토가 갈려 발이 푹푹 빠지었다 [...] 걸고 기름진 땅을 본 이들은 대뜸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었다. 척박한 땅만 두지던⁹⁾ 이네들이, 비옥한 땅을 바라고 이국땅으로 떠나는 그네들이었으니 흥분도 할 만하였고 감탄도 할 만하였다.¹⁰⁾

그만큼 이 땅은 박철성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과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청국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내리찍이는 '치발역복'¹¹⁾ 앞에서 그는 이 땅에 대한 애착과 민족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도덕의식의 모순 속에서 심한 갈등을 느낀다. 그러나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는 “데비 간다구? 아무리 어찌구 어찌구 해두 데비 조선 땅으로 달아 간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죽을 고생 다 하문서리 일귀

9) 땅을 꼬쟁이 같은 것으로 판다는 뜻의 북한말.

10) 최홍일, 『눈물 젖은 두만강』 상(민족출판사, 1999년), p.77.

11) 19세기말, 청 정부에서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청인들처럼 앞머리 밀고 머리를 땅아 드리우고(치발) 호복을 입으라는(역복) 법령을 내렸다. 이주민들은 '치발역복'을 해야만 토지집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조선인 이주민들이 이를 거역하였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피땀 흘리며 개척한 땅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놓은 땅을 데지구 어디메루? 나는 못간디이, 못가겠단 말이요.”라고 하면서 분노한다.

땅에 대한 애착과 생존본능은 박철성으로 하여금 조상의 선산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게 하였고 종자와 양식을 빌리는 대가로 큰 아들 팔용이를 동영감네 머슴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생존의식과 전통문화 및 도덕윤리규범의 충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전자를 택하여야만 하는 생존본능은 박철성의 몸에서 심한 심리갈등을 일으키며 그로 하여금 정신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다. 이러한 ‘죄의식’으로 하여 박철성은 고향을 떠날 때 통곡하였고 또한 ‘간도’에 와서 아들을 남의 집 머슴으로 들여보낸 후, 아들 앞에서 항상 “마음이 약해”지기만 한다.

그의 소박한 농민의식은 농본사상을 기초로 한다. 조선 민족에 깊이 뿌리 내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란 농경의식은 박철성의 의식 속에서도 깊이 잠자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아들 팔용이가 행상에 나섰을 때 “행상은 천한 놈들이 하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빌어먹더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겠다.”는 집념이 박철성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박철성은 용두레촌에 자리 잡은 후,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지만 최 훈장을 용두레촌에 모셔와 서당을 꾸려 자식을 공부시킨다. 그의 몸에서는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킨다.”는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의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험한 사회에서 농민의 선량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땅에 얽힌 그의 인생은 땅에 대한 절망 속에서 비참히 사그라져 간다. 청국인 오강은 ‘치발역복’의 기회를 이용하여 박철성 일가가 피땀 흘리며 힘들게 일군 논밭을 한 발 앞서 자기 것으로 등록하는 간계를 써서 빼앗아 간다. 이때 박철성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며 그 치명적인 타격은 그를 죽음의 심연으로 몰아넣었다.

작가 최홍일은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이민사를 조명하는 자세와 시각, 예술적 탐구에서 새로운 돌파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작가는 경직된

정치적 시각과 사회 역사학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문화적인 시각에서 이민사를 조명하였다. 역사를 고찰하면서 사회 문제를 보았을 뿐 아니라 생명의 약동도 보았고, 계급의 갈등을 보았을 뿐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도 보았고, 정치문제를 보았을 뿐 아니라 전통문화도 보았다. 따라서 소설 창작에서 영웅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과 민중의 삶에 눈길을 돌렸고 생활을 이상화하지 않고 세속화였다. 한마디로, 작가는 문화적인 시각에서 월경민족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찾고 우리 민족의 이주역사를 재확인함으로써 민족과 선조의 유대성 및 그로부터 유래되는 민족의 전통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민사의 재현, 이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원초적인 '뿌리 찾기' 작업이요, 중국 조선족이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행정에서의 첫 발자국이다. 이민사 재현의 공백을 메운 것이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이고 그것을 풍부히 한 것이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김학철의 장편소설 『겨정시대』(1986)는 원산, 서울, 상해, 무한, 악양, 태항산 등으로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광활한 지역을 무대로 설정하고, 폭넓은 서사적 화폭으로 조선 민족의 파란만장한 민족해방투쟁을 생생한 역사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데, 작가는 국민당과 공산당을 한 전선에 함께 세우는가 하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적 중국공산당원들이 골격을 이루는 조선의용군이 태극기를 들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과 함께 싸우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문학이나 한국 문학, 조선 문학이 할 수 없었던, 또 감히 하지 못했던 작업을 거뜬하게 완성했다.

특히 소설에서 '태극기'는 민족독립의 상징, 민족공동체의 의미로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한국광복군의 서안지대 본부는 역에서 도보로 한 20분 거리인데 어마한 삼문 앞에 권총을 찬 광복군의 위병이 서 있었다. 삼문 바로 안에서 있는 것대에는 태극기가 달려서 삭풍에 필력이고 있었다. 선장이의 가슴속에는 케케묵

은 대한제국의 국기 — 태극기를 너절하게 보는 마음과 민족독립의 상징으로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태극기에 끌리는 마음이 서로 뒤엎혀가지고 용트림을 쳤다. 참으로 야릇한 심정이다. 이런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선장이 하나만이 아니었다. 맑스주의자로서의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누구나 다 그러하였다.¹²⁾

그들은 해방구로 가는 길에, 서안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광복군과의 통일전선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친선방문단이 떠나가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거기서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떨럭이는 태극기를 목격하게 된다. 국기 게양 후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주인공 선장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잘못된 야릇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소설은 사회주의자건 민주주의자건 무정부주의자건 민족독립의 염원은 다 같으며 이념은 다를지라도 태극기라는 상징물을 통해 하나의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죽지 않았소. 죽지 았구 아직두 살아있단 말이요. 뼈라에 찍은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난 제 나라를 도루 찾은 것 같아서……속이 다 쩡합니다. 그런데 제길할, 난 여기서…….” 하고 하야시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한번 콕 박고 “왜놈의 통역노릇을 하구 있던 말이야!” 하고 통탄을 하는 것이었다.¹³⁾

하야시는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통역관이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태극기의 형상은 감출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나라를 되찾은 것과 같은 기쁨, 바로 민족을 되찾은 것 같은 쩡함인 것이다.

“조국을 광복하자면 민중이 익히 아는, 전 민족이 익히 아는, 민족 독립의 상징으로 될 만한 기발을 내세워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민중이 기꺼이 따라올 게 아닙니까. 붉은 기는 아무리 좋더라도 민중의 눈에는 설단 말입니다. 민중을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조선의용군의 젊은 군들이 너무 좀 급진적인 것

12) 김학철, 『격정시대』 하(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8), pp.344~345.

13) 위의 책, p.406.

같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의 길은 직선이 아니구 곡선이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 젊은 군들을 잘 설복해가지고, 태극기를 높이 쳐들도록 하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중에 할 일이고, 우선 나라의 독립부터 쟁취를 해놓구 봐야잖겠습니까.”¹⁴⁾

조선 민족에게 태극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문제와는 관계없는 신성한 조국광복의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의용군은 공산당, 국민당, 일본군 사이에서 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사각 구도 속에 서 있게 되지만, 그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민족과 조국을 되찾는 것으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의지와 의식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격정시대』는 일제 침략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탄압에 의한 우리 백의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운명, 그리고 선각자들이 한반도로부터 중국에 와서 혁명에 가담하게 된 역사적 필연성 및 조선의용군의 형성,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그들의 빛나는 위업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서 강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민족에 대한 ‘뿌리 찾기 의식’—선조와의 유대성은 역사 제재 소설에서 뿐 아니라 현실 제재의 소설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돌이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리원길의 장편소설 『설야』에서는 “위만 때 일본 놈들이 철도를 놓자, 그 철도를 따라 조선 영남지대의 혈벗은 농군들이 괴나리 보짐에 바가지를 달고 남부여대 이 해누리 백리 벌에 밀려들”었고 “긴내천, 용내천 같은 진펄 땅”을 “조선농민들이 소작으로 맡아 개간을 하여 논을 풀었다.”고 긴내천의 유래를 쓰고 있다. 이 소설은 긴내천의 조선족 농민들이 조선으로부터 이주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보상근 등 농민들의 땅에 토대한 생존의식의 뿌리를 이주 역사와 연계시켜 보여주고 있다.

14) 위의 책, p.407.

최국철은 단편소설 「A진 회갑상 술집」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하고 있다.

A진은 마반산맥과 남강산맥 사이에 형성된 자그마한 분지로서 함풍 16년(1861년)에 두만강을 건너온 월경이민들이 봇나무림을 찍어 넘기고 부대밭을 일구면서부터 개척이 되었고 광서 7년(1881년) 변방군무대신 오대징이 지나면서 두만강 강변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글까지 돌에 새겨놓은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위만주로부터 일본사람들에 의해 무진장한 석탄자원이 개발되면서부터 '일본령사관'이 들어앉았고 큰 골목에는 공부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술집, 기생집까지 여러 개 앉아 무척 번창하였다…….

기묘한 일치이다. 일제시기의 술집과 기생집 자리에 광복 후 멋진 공소사가 일떠섰지만 지금은 또다시 술집으로 변해버렸다. 역사의 흐름은 미묘하고 주기적이다.

A진의 백여 년의 역사가 몇 마디로 개괄되었는데, 이런 역사 속에 A진이 더욱 현실감 나게 살아나고 있다.

권운의 단편소설 「황소」는 우리 이주민들이 만주 땅에 이주하여 거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두만강을 건너 황소가 발걸음을 멈춘 고장이 바로 여기 혜장마을이다. 그해 우리는 땅굴 속에서 겨울을 났어. 어찌나 춥던지, 그럴수록 갑산동 초가집이 그리워지더구나. 이듬해 봄부터 아버지는 부대를 일구기 시작했어. 고령하 목발에 불을 놓고 팽이로 자갈땅을 뚜졌지. 황소는 밭을 갈았어. 어머님은 돌을 주어내고 씨를 뿌렸다. 나도 조롱조롱 따라다니며 두 손으로 씨를 묻었어. 참말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은 열심히 일하셨다. 황소처럼 말이다. 내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되지만 황소나 아버님의 모습이나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어…….

이렇게 작가들은 그것이 역사 제재 소설이든 현실 제재 소설이든 선조의와의 연계성—민족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열심히 하여 왔다.

3. 민족정신과 ‘뿌리 찾기 의식’

이주 역사를 그리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 자체보다도 공동체로서 민족과 선조의 유대성 및 그로부터 비롯되는 민족의 전통이 갖는 현실적 의미, 즉 민족 문화전통에서 현실극복과 민족의식 고양의 근거와 자양분을 찾음으로써 조선족의 삶과 문화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민족의 자강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의미가 크다. 허련순의 『바람꽃』과 같이 직접 민족의 뿌리 찾기에 주안점을 둔 작품이나,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조선족의 이주사를 다룬 작품이나 현실 제재 소설들인 리원길의 『설야』나 권운의 『황소』 같은 작품들은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민족의식, 민족정신, 민족적 의지, 민족적 기질, 민족적 성격 및 그들의 인정세태와 세태풍속 등에 대한 묘사에서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으려 강한 민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뿌리 찾기’ 문학의 기본 내용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조선족 소설에서 ‘뿌리 찾기 의식’은 민족적인 정신과 기질, 강毅한 삶의 태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민족은 자고로 근면하고 생명력이 강한 민족이다. 지난 세월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으면서 갖은 고초를 겪어왔지만, 언제 한번 굴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끈질기게 생활을 개척해나가면서 위대한 창업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의 조선족 역시 19세기 말의 엄청난 자연재해와 20세기 초의 수난의 역사 시기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거친 만주 땅에 개척의 팽이를 박았고 갖은 고초를 이겨내며 정착했다. 조선족 작가들은 바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활을 영위해 가고 지조를 지켜가는 우리 민족 인간들의 삶의 태도에서 민족의 저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허련순의 『바람꽃』에서 주인공 흥지하는 선조의 뿌리를 찾아 서울 바닥에서 표류하는 와중에, 한국 사회의 부당성과 부딪치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독과 좌절을 겪지만, 사회의 비리와 병리적 어둠과 날카롭게 맞서나가며 뿌리 찾기 작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홍지하의 굳은 지조와 끈질긴 집념과 도고한 인격에서 민족적 기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리근전의 장편소설 『고난의 연대』의 주인공 박천수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절개를 지켜가는 강인하고 대바른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다. 만청 정부에서 ‘치발역복’을 강요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 토지소유권을 주고 거역하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는 생존권 문제 앞에서, 민족반역자인 오영길은 거기에 순종하여 토지소유권도 가지고 후에 지주로 된다. 반면 그것이 관가에서 조선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꾸민 수작이라고 여긴 박천수는 “제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굶어죽고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뜻만은 굽히지 말아야 하며 절대 그런 굴욕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보네.”라고 굴욕적인 ‘치발역복’을 거부한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논을 하룻밤 사이에 떼이고 말았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긍지를 느낀다. 또한 오영길이 마을의 장로로 대우받는 자기에게 빌붙으려고 땅을 그냥 부치면서 공양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한마디로 거절해 버린다.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역시 칠성이를 주인공으로 한 조선족 이민 1세들의 회로애락 속에서 그들의 끈질긴 민족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박칠성이를 비롯한 촌민들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개척정신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월강죄로 단두대에 오를 위협을 무릅쓰고 이역만주 땅에 들어섰고 청정부의 ‘귀화입적’, ‘치발역복’의 강요 및 일제와 한인(漢人), 마적 등 이중 삼중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적 지조와 인격과 의지를 고수하면서 만주 땅을 개발하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면서 삶을 영위해 갔다.

위의 소설들은 이주민들의 개척정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개척정신을 통하여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민족의 끈질긴 정신, 즉 그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나가는 민족의 저력을 파헤치고 있는데, 작품의 근저에 깔려있는 민족의식이 돋보인다.

역사적으로 조선 민족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 정신이 강한 민족이었다. 일판에 농악을 벌여놓고 전체적 기분으로 노동을 즐길 정도였다.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자기의 원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지만,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 정신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것은 또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허련순의 『바람꽃』,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김학철의 『걱정시대』 등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조선족의 선조들이 낯선 만주 땅에 정착하여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열악한 환경일수록 하나로 뭉치는 '우리'의식과 상부상조의 민족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련순의 『바람꽃』에서 주인공 홍지하는 딸애의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돈을 훔친 친구를 대신하여 "3년 징역"을 살며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서울에 갔을 때도 매춘여성 서은미의 비참한 운명을 동정해 돈 백 달러를 주며, 서울밀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친구 인규 내외와 중국교포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데, 홍지하의 인격에서 우리는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오가는 조선 민족의 고상한 도덕과 인간애를 뜨겁게 감지하게 된다.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에서 박천수는 "나무에 달린 과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이 먹기 위한 것이고 전야의 곡식도 만 사람이 공동이 향수해야 할 것이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대지를 고루 적시 듯, 세상 만물은 결코 그 어떤 사람이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¹⁵⁾을 하나의 신조처럼 믿는 사람이다. 그는 두만강을 건너온 유랑민들을 천수동에 받아들이고 식량과 종자를 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10년 만에 찾아온 윤민이가 살림에 보태라고 내놓은 돈으로 몽땅 식량을 사서는 생활이 어려

15) 리근전, 『고난의 연대』 상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82), p.137.

운 집들에 골고루 나누어준다. 그는 굶주림을 견디며 겨우 남긴 벼 종자를 벼농사를 지어보려는 낫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한다. 심지어 “농사일에 미련이 없는” 오영길에게 자기의 아들 윤돌이를 보내어 도와주도록 한다. 그런 박천수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적선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최홍일의 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극한의 세계에서 몸부림치다가 월강하여 만주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생활 역경 속에서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갔다. 주인공 박철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순박하고 무뎠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인간, 언제나 남을 후덕하게 대해주고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선다. 만청 정부의 ‘치발역복’을 대함에 있어서나 마을이 호적들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선두에 나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는 더 끈질기게 버티고 섰으며 더 후덕운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다.

위의 작품들에서 작가들은 민족의 인정세계를 그림에 있어서 그것을 단순한 인정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끈질긴 삶의 정신과 밀착시켜 그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영원함을 찾고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린 ‘우리’의식과 상부상조 정신은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민족 문화를 고수·발전시키고 중국에서의 이주민들의 위치 확립과 문화정합 및 제반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4. 민족적 성격과 ‘뿌리 찾기 의식’

민족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민족 고유의 성격을

부각하는 데서 가장 생동하게 체현된다.

권운의 「황소」는 황소에 깃든 이야기를 통하여 전통문화 뿌리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한 이색적인 증편소설이다. 월경 민족으로서 만주 땅에 이주하여 거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조선족들에게 “황소는 중국 조선족 농민의 상징이요,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우직하고 느리지만 끈기 있고 부지런하며, 한평생 풀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혼신을 사람들에게 바치는 인육부중(忍辱負重)의 덕을 지니고 있는 황소는 조선족 아버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과묵하고 무뚝뚝하나 속이 깊고 듬직하며 어머니처럼 아기자기한 정은 없어도 깊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며 평생을 황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오로지 가족과 자식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아버지, 바로 이것이 조선족 아버지의 형상이다.¹⁶⁾

소설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는 중국 조선족 농민, 조선족 아버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평생을 황소같이 부지런히 농사짓고 함경도 황치소를 키우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혼신을 바쳐왔다. 그러나 자식들은 하나, 둘 함경도 황치소를 판돈을 밀천으로 고향을 떠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해외로 빠져나간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농촌을 떠나는 자식들의 행동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황소를 명줄과 같이 여기고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키우지만 정작 막내아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는 끝내 것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황치소를 팔기로 결심한다. 아버지가 황치소를 팔러 화룡 시내로 가는데 어디선가 황소의 “우웅, 우웅” 하는 목멘 영각소리가 들려온다. 이 결말이야말로 민족의 뿌리 깊은 농경문화가 서서히 무너지고 도시문화로 전이되는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16) 김관웅, 「민족적 사실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소설문학」, 『도라지』 1999년 제3기, p.143.

최국철의 소설은 향토냄새로 특징지어지는 인물의 개성화가 펍 인상적인데, 작가는 처녀작 「시골의 빛깔」(1986.2)에서 조선 민족에게서만 볼 수 있고 시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흙냄새와 풀냄새, 된장냄새가 물씬 풍기는 원 영감의 형상을 보는 듯이 그렸다.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는 원영감의 과묵하고 괴팍스런 성미가 그대로 생생하게 안겨온다.

현대 원영감은 쪼글쪼글한 얼굴에 돋은 뚜렷한 검버섯 속에 과묵을 숨겨두었는지 진종일 가도 노친과 도탑게 굴 줄 모르고 거퍼 뒤 마디 말도 건너지 않는 성미였다. “하-아.” 이는 원영감이 몹시 성났을 때 단마디 불만ियो, 명령ियो, 예고요, 위협이다. 이 말만 떨어지면 실 새 없이 지청구를 늘어놓던 그의 마누라 정씨는 대뜸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런가 하면 수다스럽기 짝이 없는 양어집 댁이 방아를 찧는 통에 낮잠을 설친 원영감은 “젊은이 못지않게” “씽—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댁 바람에 방아채를 허궁 뿜아 포도덩쿨 아래다 태를 처버렸다.” 원영감이 화장실에 술한 폼을 들여 만들어놓은 방아를 없애버리는 장면에서 과단성과 괴상한 성미가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날 밤 방아채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이튿날 효성스런 꿀벌 집 며느리가 방아를 찧을 때는 시름없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잔다. 이리하여 작가는 괴팍스럽고 과묵하면서도 아량과 인정미가 있는 원 영감의 형상을 완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직하고 대바르고 사리 밝고 후더운 「백성의 마음」(리원길)에서의 석구 영감, 파란 많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물이 나도록 갈마드는 가난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온 「이향」(리원길)에서의 선우돌석 영감 등은 조선족 이민1세 또는 모든 아버지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형상은 소박하고 큰일을 위해 치욕을 잘 참는 일면, 인색하고 쉽게 만족하며 농민고유의 복수심, 정신승리법의 심리기질 등도 가지고 있는 진환생¹⁷⁾

17) 중국 현대 소설가 고효성(高曉聲)이 1980년대 초에 발표한, 『陳煥生上城記』

과 같은 중국작품 속의 농민형상들과는 판이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림원춘의 단편소설 「몽당치마」(1982.1)에서 주인공 동불사댁은 부지런하고 인정 있고 예절 밝은 수수한 농촌여성이다. 그녀는 생활이 구차하여 친척들의 결혼잔치나 회갑잔치에 아무런 부조도 못하고 항상 “무릎도 겨우 가리우는 색이 날대로 난 몽당치마”를 입고 다녀야 했다. 때문에 그녀는 장손 댁이지만 장손 댁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된 일에는 불러 다니지만 “떡어라, 마셔라.” 하는 때는 친척들에게 잊혀진다. 그러나 그녀는 친척들의 큰일 때마다 땀 흘리며 부엌일을 도맡아 한다. 사촌 시동생의 잔치에 빈손으로 온 그녀는 가마 목을 차지하고 앉아 힘들고 시끄러운 일을 도맡아 하며 신부가 예단을 올릴 때는 밖으로 피해나가 혼자 눈물을 흘렸고 시아버지의 회갑잔치에도 술 한 병을 들고 와서는 술한 땀을 흘린다. 동불사댁은 자기의 생활이 피고 잘살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친척들을 따뜻하게 대한다. 공업국 부국장이었던 ‘나’의 남편이 ‘우경 기회주의 분자’로 몰려 농촌으로 추방되어 생활이 구차하게 되자 그 많은 친척들이 모두 발길을 끊었지만 유독 동불사댁만은 수시로 ‘나’의 가정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추석날에는 먹을 것과 옷감을 끊어가지고 보러온다. 새 시기를 맞이하여 동불사댁은 만머느리를 맞이할 때 여전히 ‘개조’ 대상으로 고생하는 ‘나’가 빈손으로 오게 될 처지를 헤아려 ‘나’에게 옷감을 보내면서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오라고 하고는 잔치 날에 다시 새 머느리의 예단으로 ‘나’에게 준다.

이런 동불사댁의 형상에서 사리 밝고 순박하고 인정 많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말없이 이겨나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의 외유내강의 참된 형상을 감동 깊게 볼 수 있다.

또한 “끝없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우주

등 진환생 계열소설 5편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진환생은 현대 중국농민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후 진환생 계열소설 5편을 『陣樂生上城出國記』란 제목으로 묶어서 출판하였다.

의 자궁」(허련순)에서의 시어머니 안씨, 모든 것을 포섭하고 받아들이고 삭이고 해소하며 모진 풍진세파를 말없이 이겨가는 「조모의 전설」(김혁)에서의 쌍가매 할머니의 형상은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여인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5. 민족적 위기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

20세기 말 조선족 작가들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으로, 자기 시대의 빛과 그늘, 삶의 진실과 허위를 진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민족의 단점을 꼬집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전통적인 윤리도덕의 파멸과 인간성의 타락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까밝히면서 민족의 운명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최국철의 「당신과 당신의 후예들」(1999.3)은 중국 조선족의 삶의 상황과 생존 위기의 현주소를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심층적인 사색을 펼치고 있다. 소설은 러시아로 떠나는 열차 안에서 조선족 여인을 만나 동행하는 ‘나’와 그녀 사이의 이야기를 주선으로 끌고 가면서 회상, 비약,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중국에로의 이민사, 문화대혁명의 수난사, 개혁개방 후 도시로, 해외로의 대이동을 펼쳐 보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설은 ‘나’가 러시아로 떠나는 길에서부터 어렸을 때 조부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끊임없이 회고하면서 중국 조선족 조상들의 이민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데 “백년 전……, 조선 땅……, 큰 흉년……, 두만강……, 왕쥐꼬리……”의 반복적인 표현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의 이민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의 와중에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떼어버리고 외기러기 같은 신세가 되어 러시아로 떠나는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이민사와 교차적으

로 엮어나가면서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조선족들의 유이민적인 문화성격을 그 뿌리로부터 파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 조선족들의 민족공동체의 해체 현상과 그 운명을 제시하고 있다. 소설은 ‘나’가 쉽 없이 달리는 국제열차 안에서 “그래, 가는 데까지 가보자. 가차가 가는 곳까지 가보고 볼 판이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떠돌이 유동의식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넓은 사색의 시공간을 펼쳐준다.

리원길의 장편소설 『설아』(1989)에서 주인공 황보상근 영감은 민족 속에 깊이 뿌리내린 중농경상(重農輕商)의식과 전통적인 윤리도덕의식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그는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농군이 뭘 믿고 사노? 땅 믿고 살지, 안 그렇나? 쌀이, 하연 쌀이 하늘에서 거저 쏟아지나? 땅, 땅에서 나지, 땅 없으면 너 이마뺨에다가 심어먹을라나? 땅이 돈이라, 그래 금 조각 같은 땅을……”라는 식이다. 호도거리¹⁸⁾를 하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땅을 나누기 전’에 며느리를 얻는다면 땅을 한뫼 더 탈 수 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빨리 장가가라고 강요했지만,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자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만 호도거리가 늦추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딸 순이는 호도거리를 실시하여 땅을 분양 받은 다음에 시집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들 황보석이 당 회의에 간다고 하니 “당 회의”로 듣고 자기도 가겠다고 나서며,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땅에 미쳤다.” 하고, 아버지는 “당 회의도 땅 회의겠지.” 한다. 그는 땅만 있으면 생존이 보장되고 생활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호도거리가 시작되어 생산대의 재산을 나눌 때에도 황보 영감은 트랙터보다 황소에 더 애착을 가지고 다 나누고 남은 절름발이 소를 가져와 정성껏 거둔다. 그에게 있어서 소는 땅 다음으로 가는 귀중한 존재이다. 그

18) 1980년대 초, 농촌개혁이 실시되면서, 농토를 인구 당으로 농민들에게 분양하여 개인 농사를 짓게 한 것.

는 노동력의 중요성을 알고 체구가 “웅장한” 처녀를 이상적인 머느리 감으로 점찍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미옥한” 아들을 깨우치려 한다.

그는 농사만이 천하지대본이라 생각하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돌뱅이로 보고 아들이 “보따리 장사군” 박봉숙과 연애하자 펄펄 뛰며 아들한테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무당을 청해 굿을 해서 그들을 갈라놓으려 한다.

“옆집 색시 받고 장가 안 간다고 그 보따리장사 가시나, 데려오지도 못할 보따리장사 가시나한테 미쳐 장가도 못가고 땅까지 떼우겠나? […] 글던 데다가 아들딸 낳으면 식구는 붙고 땅은 그만 한 대로 그냥 […] 이게 안뽀 굿새다, 굿새!”

소설은 조선족 농민의 의식구조에서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 의식—생산대상인 토지에 대한 집요한 애착, 주요한 생산도구인 황소에 대한 애착, 농민으로서의 정열적인 자부심과 열정, 제 손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만족감, 상공업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 전통적인 윤리의식, 미신 등 전통적인 문화의식—을 주인공 황보상군의 성공적인 부각을 통해 형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김동규의 「누님이 그린 그림」(『도라지』, 99,2)은 조선족의 음주문화에서 나타나는 민족적인 단점을 비판한 소설이다. 소설에서 아버지는 “조롱 박처럼 생긴 술병을 일년 사시절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주정뱅이고 매형 역시 한심한 술주정뱅이인지라 술 중독에 의해 죽고 만다. 이런 조선족을 두고 주위의 한족들은 “조선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술을 잘 마신다요.”, “조선 사람들은 술을 밥처럼 마신다요.”라고 야유한다. 소설은 음주문화에서 나타나는 단점과 타락상을 타민족의 입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비판의 강도를 훨씬 높이고 독자의 얼굴을 뜨겁게 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알콜 중독자인 매형이 택시 안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자 한족 택시기사는 매형 일행을 눈보라 치는 허허벌판에 사정없이 내동

덩이쳐 버린다. 알콜 중독자가 된 매형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내버려지는 결말은 독자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사색을 던져준다.

김영자의 「가는 세월 오는 세월」(1993.3)은 조선족의 단점—과소비의식과 하루살이의식을 생동하게 들추어낸 재미있는 작품이다. 소설에 나오는 동수 부부는 한번 본때 있게 살아보려고 소처럼 일한다. 땅도 남보다 곱절이나 부치고 수확도 많이 내지만 행복의 신은 그들을 외면해버린다. 허영과 임시 먹는 곳감에 유혹되어 무계획적으로 살림을 꾸리다보니 외상돈과 이자 돈에 놀려, 그렇듯 웃음주머니를 흔들며 주던 칼라 텔레비전도 날려 보내고 달콤한 기와집 꿈도 산산조각이 되고 만다. “방금까지도 왕씨네 계사니처럼 시뻘해 하던 길자는 급작스레 비맞은 장닭 신세가 되어 멍하니 색텔레비만 바라보았다. 멍을 모르는 색텔레비만이 제멋에 그냥 노래가락을 뽑았다.”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 날리리 멜로디에 실려 구슬피 흐르는 한 농민 일가의 비극, 있으면 모을 줄 모르고 혼전만전 써버리는 현상은 확실히 조선 민족의 단점의 하나이다.

조선족 작가들은 줄곧 민족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민족문화의 단점과 폐단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민족의 자강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6. 민족의 풍습, 언어 그리고 ‘뿌리 찾기 의식’

20세기 말 조선족작가들은 민족문화의 전통적 연계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민족적 색채가 짙은 향토소설을 많이 창작하였는데, 그들은 중국의 문화환경 속에서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민족의 풍속습관과 세태에 대한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민족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최국철의 「혼사 날의 별곡」(1990.1)에서는 결혼 날에 벌어지는 민속적인 이야기, 특히 신부의 큰상에 파배기를 놓느냐, 곱게 포장한 과자함을

농느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세대적인 이야기를, 「A진 회갑상 술집」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회갑잔치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정세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 소설에서 우리 민족의 민속적 풍습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임원춘의 「몽당치마」(1993.1)에서 묘사되고 있는 결혼잔치와 회갑잔치 장면, 그 속에서 엮어지는 인간관계는 민족의 정서와 성격 및 풍속세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고 독자들에게 더없는 친근감과 생동감을 준다. 리원길의 「백성의 마음」에서 기아의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아 벼 종자를 담그는 장면, 벼 종자를 담고 생긴 쪽정이로 떡가루를 내여 송편을 만드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한 폭의 풍속도와 같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리혜선은 민족의 원생적인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특정된 환경을 선택하여 묘사함으로써 민족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소설 「어랑 할미 백세 일화」에서는 향소재지에서 팔십 리나 떨어지고 또 버스정류소에서 사십 리나 떨어진 두만강변의 벽촌을 무대로 하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현대문명과 격리되어 있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맞대어 있어, 민족생활의 역사적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갈 가능성을 가진다. 이런 환경에서 ‘어랑할미’를 둘러싸고 문명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화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또 그와 관련된 미신 관념과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표현된 인물들의 심리정서와 언어행위는 바로 농경생활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민족의 원초적 생활면모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절실한 향토 묘사 역시 소설의 민족 의식을 반영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19세기말 조선 민족의 이입과 함께 이 땅에는 많고 많은 전설들이 나타났는데, 최홍일은 자기 소설에 아름다운 향토전설과 여러 가지 전설들을 능란하게 삽입시키면서 작품의 민족적, 향토적 색채를 더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두만강과 ‘월강곡’, 그 속에는 조선족의 한이 서려있고 백두산의 거창한 모습에는 굴하지 않

는 조선족의 얼이 스며 있다. 그러한 정기를 타고 낫기에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조선족은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았다. 작품에서 가장 정체로운 것은 용정 지명 전설이다. 신비한 용두레 우물전설을 더하여 용정은 이채를 돋우는 곳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전설들을 능란하게 사용하여 용정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돋우고 월강 민족의 수난과 개척, 그리고 그들의 끈질긴 정신과 향토전설을 밀착시키면서 향토적인 색채를 짙게 하고 있다.¹⁹⁾

김학철의 『격정시대』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실태, 인문지리, 풍속습관, 언어 예절 등을 풍속도와 같이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해당시기의 시대 사조와 정신적 분위기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문학에서 민족의식과 ‘뿌리 찾기 의식’은 민족정신, 민족성격 등과 같은 내재적인 요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그 표현수단인 언어, 표현수법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농민소설가로 불리는 리원길은 언어의 대가이기도 하다. 리원길은 장편 『설야』에서 묘사, 지문, 인물 대화 등 전반 작품에서 민족적 색채와 농민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성격 형상을 생동하게 그릴 뿐 아니라 농촌도급제²⁰⁾ 전야 긴내천 농민들의 생활 화풍을 눈에 보는 듯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테면 “돌 틈에서 빠져나와 제 밥 먹고 큰 것처럼”, “상투가 국수버섯 솟듯 해서 우리 말은 개방귀로 아니 방법이 뭐야. 소 새끼 말 안 듣는 건 코나 꿰서 끌지”, “백성은 자기 안속만 땅땅 잘하여 놓는 것이 장땡이다.”와 같은 대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앓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겠다구”, “삶은 대가리가 양천대소할 소리”, “계집은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면 서도 열두 가지 생각을 한다.”, “약빠른 고양이 밤눈이 어둡고”와 같은 성

19) 윤윤진, 「‘뿌리 찾기’와 『눈물 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년 제5기.

20) 호도거리와 같은 뜻.

구, 속담, 격언의 능란한 운용, “돌담 구멍에 족제비 눈깔처럼 말뚝말뚝 쳐 다본다.”, “지렁이 물고 싸우는 닭 새끼들처럼”,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 이라”, “키는 봉산 수숫대 같다”, “바윗돌이라도 헹헹 내던질 건장한 씨름꾼”, “제 나막신 신고 옛길 걷는 줄 모르고 남의 뚫단배 빠르단다.” 등 다양한 표현 수법의 재치 있는 운용,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풍부하고 다채롭고 독특한 언어로 민족의 성격, 세태풍속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최국철 역시 소설에서 민족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소설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형상 창조에서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민족적 냄새를 짙게 풍겨 준다. “저 옛말에도 있잖은가. 아흔 아홉 개를 가진 놈이 하나를 가진 놈에게 하나를 달라구 말이야. 백 개를 맞추겠다구”(『어둠의 끝』), “옛날부터 큰 집이 무너져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그 큰 공장에 그만한 돈이야 없을라구.”(『흘러가는 겨울』), “…… 허나…… 지금 ‘삼중지덕’을 봉건적으로 구겨박고 여성의 수족을 얹어매 놓았다는데 나도 이해는 하고 있소만, 그 자체를 교조적으로 풀이하지 말고 좀 해학적으로 풀이해보면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요.”와 같은 식이다.

이렇게 조선족작가들은 언어구사에서도 민족적 색채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7. 결론

총체적으로 볼 때, 20세기 말 조선족 작가들은 자기 소설에서 민족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의 끈질긴 개척정신과 삶의 정신 속에서 민족의 뿌리를 찾고 있다.

허련순의 『바람꽃』,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리원길의 『설야』, 임원춘의 『몽당치마』, 김학철의 『격정시대』,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최국

철의 「당신과 당신의 후예들」, 권운의 「황소」, 리혜선의 「어랑할미 백세 일화」 등 소설과 같이 조선족 문화에 뿌리박고 민족정신, 민족성격, 민족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작품도 적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족 문단에는 민족문화의 단절현상, 즉 문화 단층(文化斷層)이 생겼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절층은 문화대혁명 기간이다. 문화대혁명기간에 문화허무주의를 고취하고 지방민족주의를 비판한 것은 민족문화발전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극좌'사조의 영향으로 조선족은 수십 년간 자기문화의 뿌리와 문화적 내함에 대한 깊은 반성을 외면한 채 지나왔고 그 여파로 우리의 적지 않은 문학작품은 민족문화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족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지만 민족적인 정서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수십 년간의 단절은 민족문화의 활력을 쇠퇴시키고 문화수준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문화의 끈(文化帶)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문화는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 조선족 문학에서 끈질기게 추구해 온 '뿌리 찾기'는 바로 종적인 문화단절을 미봉하여 문화의 원천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문화적인 기갈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민족문화는 그 민족의 뿌리이고 영혼이다. 어느 민족의 작가이든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환경·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감정, 희망을 떠나서는 세계적일 수가 없다. 또한 세계문화의 풍부성은 바로 민족문화의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무리 세계문화의 충격이 크다 하여도 본 민족의 문화는 쉽게 멸망되지 않는다. 이는 민족 문화전통의 견고성과 사회구조의 안정성, 민족심리의 배타성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족 문학이 외래문학에 의해 침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된 환경과 일정한 시기에 외래문학에 동화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 조선족 문학은 중국의 한족문학과 외래문학의 영향을 갈수록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일면 문화는 문물이 아니다. 문물은 안정하면 할수록 좋고 조심스레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는 유동적이고 발전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개념이다. 문화는 자아 봉쇄와 자아 응고의 특성이 있기에 부단히 충격하여 분열이 생기기도 해야 한다. 인류는 문화를 창조하였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고대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낙후하게 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문화에 대하여 보수주의를 취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는 하나의 복잡한 조합체이고 혼돈물이다. 거의 모든 관념은 옳은 점과 그릇된 점, 진보와 반동,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조선족은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있고 대바르며 불의에 못 참고 헌신적이며 민족의식이 강한 일면, 인내성이 없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충동하고 쉽게 변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등 단점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의 성격과 심리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때에 통제를 받지 못한 데다가 각종 외부적인 영향으로 갈수록 심해지면서 민족 개개인과 조선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조선족의 반성과 자아성찰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깨달은 것이 민족의 전통문화 속에는 유해한 침전물들이 있으며 민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침전물들을 깨끗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뿌리 찾기'는 세계와의 대화를 위해서이다. 바꾸어 말해, 세계와 대화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한 작품이 세계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문학과 경쟁하려면 자기민족 특유와 고유의 민족정신과 민족풍격이 강해야 한다. 때문에 '뿌리찾기'는 문화의식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뿌리 찾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골리는 “민족성은 '민족정신자체'를 표현한다.”고 했고 벨린스키는 “민족성의 비밀을 알려면 주요하게 그 민족의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요해해야 한다.”고 했고 노신도 “국민의 영혼”을 그려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문학은 민족문화의 최고 표현인 민족정신, 즉 민족의 영혼을 그려내야 한다.

□ 참고문헌

- 『문학과 예술』, 『연변문학』, 『장백산』, 『도라지』
金漢 외, 『中國當代文學發展史』, 상해: 상해문예출판사, 2002.
陳思和 외, 『中國當代文學史教程』, 상해: 복단대학출판사, 1999.
조성일 외, 『조선족 문학사』,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0.
임범송 외, 『조선족 문학연구』, 하얼빈: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조성일, 『중국 조선족 문학개관』, 연변: 연변교육출판사, 2003.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 조선족 소설문학』, 서울: 월인출판사, 2001.
이광일, 『해방후 조선족 소설문학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3.

Abstract

The Root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the Works of Korean Chinese Writers

Wu, Xiang-Shun

The aim of this essay is the study of root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Korean Chinese writers. Before the reform of 1970s, Korean Chinese writers cannot investigate the root of their ethnic because the government only requires the identity of minor ethnicity in China. After the reform, Korean Chinese writers acquire the freedom of representing the root consciousness .

Many writers such as Hu RYun-Soon, the author of *The Flower of Wind*(1996) fight to find the identity of Korean Chinese in their novel. Because many Korean Chinese immigrate to China after the Japanese invasion to resist or survive, they regard Korea as the father land. The ethnic commonness of Korean and Korean Chinese is the basis of this identity finding. Common language and custom are also closely connected with root consciousness.

The way of representing the root consciousness is complex. Some writers find the identity by way of historical approach such as historical novel dealing with the life of people under the Japanese rule. Other writers investigate the identity politics by way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such as visiting Korea.

key words : Root consciousness, Identity of minor ethnicity, Identity of Korean Chinese, Ethnic commonness, Hu RYun-Soon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